| 현불 논단 |

갑질에 대처하는 부처님 말씀



이미령
칼럼니스트

바라문 출신 젊은 스님의 고민
"왕족 계급 붓다 제자라고 비난"
출가 전 계급, 사람들에 시달려

지위 낮은 사람에게 폭력 행사는
현재도 당시와 별반 다르지 않아
체육계 폭력 · 미투가 이를 보여줘

부처님, 갑질러들에게 혹독 비판
"행동 고결하지 못하면 곧 노예"
서로 진정한 벗 되는 慈心도 제시
단호하며 따뜻한 대처를 본받자

초기경전 니까야에 들어 있는 이야기다. 최고 계급이라 일컬어지는 바라문 출신인 젊은 스님 한 분이 영마음 속이 복잡했던 모양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의 속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분인지라 부러 그를 찾아가 넌지시 그 사정을 물으신다. 뜻밖에도 제자는 이런 속내를 털어놓는다.

"저와 같은 바라문 사람들이 제게 엄청난 비난을 쏟아 붓습니다. 가장 높은 계급인 제가 어찌 저보다 낮은 신분의 고타마 붓다 제자가 될 수 있느냐고 말이지요."

출가 전 부처님의 신분은 왕족계급인 크샤트리아. 그러니 바라문보다 낮은 계급인데 그런 자의 제자가 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정은 더 복잡하다. 승가에는 신분 계급 차별 없이 오직 진리를 존중하고 수행하려는 자들이 어울려서 지내고 있는데, 낮고 천한 자들과 어찌 한데 어울려서 지내고 있냐는 것이다. 젊은 스님은 출가 전 계급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퍼붓는 혹독한 비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니까야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사람의 목숨에 높낮이를 정해놓고 심지어 거기에 깨끗하다거나 더럽다는 가치평가까지 내리던 시절이다.

생각해보면 지금의 우리 사회와 별반 다를 게 없다.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며 사람을 나누는 것은 차라리 애교에 가깝다. 가진 자들이, 있는 자들이 권력과 명예와 부를 등에 업고 온갖 패악질을 부리고 있다. 자신보다 덜 가지고 자신보다 지위가 낮고 자신보다 체력이 약하고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가차 없이 유세를 떨고 있다. 폭력도 그런 폭력이 없다. 유세를 떠는 정도의 폭력이 아니라 물건을 던지고 주먹질을 해대고 심지어 성폭력까지 저지르고 있다.

그럴 때 부처님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실까. 모진 수모와 폭행을 함부로 부리는 이들에게 '모두가 평등하다' 고 따뜻한 법문을 주셨다고 생각하는가. 참고 견디라며, 그런 상태를 수행의 일종으로 삼으라고 다독이셨을까. 그런 법문은 기대하지 말자.

부처님은 매우 현실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자기 핏줄의 맑고 깨끗함을 자랑하는 이에게는 그들의 가문에 깃든 출생의 비밀을 터뜨리신다. 그대들 조상 몇 대쯤에 이런 '얼룩' 이 있는 걸 알고서 그리 행동하느냐는 일갈이다.

게다가 노예나 천민계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행동이 윤리적이지 못하고 고결하지도 못하다면 그게 바로 노예요 천민이라는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 정말 그렇게 잘난 핏줄이라면 행동도 잘나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지도 못하면서 자기보다 낮고 약한 사람에게 권세를 부리고 유세를 떨고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 악업의 과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며 노골적으로 비판하시는 분이 부처님이다.

하지만 따뜻한 대안도 있다. 유명한 자심(慈心)이 그것이다. 흔히 사랑, 자애로 번역하지만 이 말에는 우정이란 뜻이 담겨 있다. 상대방을 내 벗으로 맞아들이는 마음인 자심은 배려심(配慮心)이라 옮겨도 좋을 듯하다. 배(配)란 짝, 파트너란 뜻이 아닌가. 상대방은 함부로 대해도 무방한 존재가 아니라 나만큼 소중하고 나의 진정한 벗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자심이다. 그래서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라는 말이 나왔나보다. 때로는 단호하게 그러면서도 따뜻한 대안으로 갑질을 대처하는 부처님의 방식을 배울 만하다.

갑질의 횡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언론을 장식한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갑질의 폭력은 더 많고 이제 시작이라고들 한다. 무얼 믿고 저리 행동했을지 묻고 싶다. 저들의 횡포를 보자면 세상에 둘도 없는 싸구려들의 삶을 보는 것만 같아 안쓰럽기까지 하다.



마음산책

마음의 주인이 되려면…

황수경 동국대 겸임교수

대학생 김 군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토요일만 되면 우울했다. 형편이 어려워서 매주 토요일마다 집 근처 카페에서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를 해서다. "남들은 주말에 친구도 만나고 놀러도 가는데 난 돈을 벌어야만 하다니"하며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했다. 카페에 있을 때는 손님이 많이 오지 않았으면 하고 바랐다. 어차피 시간당 급여를 받으니 손님이 적을수록 일하기도 편한 것이다.

그러다 명상수업 시간에 자애명상 등 마음을 내는 것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모두의 마음은 연결되어 있고, 남을 축원하는 것이 곧 자신을 축원하는 일이라는 공덕에 대해 알게 되었다. 매 수업시간마다 '모든 사람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행복하기를, 편안하기를' 하고 함께 마음을 보냈다. 반복하다보니 신기하게 자신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느끼게 됐다. 어느 날 알바를 하며 커피를 만들다가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이 손님이 행복하시길' 하고 마음을 보냈다. 미소가 지어지면서 마음이 환해졌다. 왠지 행복해졌다.

이전에 김 군은 자기는 을이라고만 생각했고, 손님을 대할 때 별 힘이 없다고 여겼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마음의 주인이 되었다. 그러자 마치 자신이 카페 주인이라도 된 듯, 오는 손님들이 반갑고 신이 났다. 위치는 아르바이트생이지만 마음 차원이 달라진 것이다. 이제 토요일은 돈도 벌지만 스스로 '사랑 커피' 를 만드는 날이 되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남을 생각할수록 자신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돼 놀랍다"고 회자했다.

임제 스님은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이라고 했다. 갑의 자리에 있더라도 주인의식이 없이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은 진짜 주인이 아니다. 을이라도 진정으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고 전체와 타인을 생각할 수 있다면 지위만 갑인 사람보다 마음 차원은 더 높은 것이다.

요즘 우리 사회가 힘들다고 하지만, 역사상 더 힘든 때도 많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을 지낸 백범 김구 선생은 "우리나라가 해방이 될 수 있다면 나는 문지기를 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김구 선생은 유명 인사지만, 알려지지 않은 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 고통 속에서도 주인처럼 행동했을 것이다. 역사상 지위와 학력과 상관없이 자기 자리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헌신하신 수많은 이름 모를 조상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다.

손님은 남 탓을 하고 남이 해 주기를 바라지만, 주인은 책임을 지며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지금 한번 마음을 돌아보면 어떨까. 집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자신은 주인인가 객인가. 삶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살고 있는가. 무늬만 주인인 객으로 지내고 있는가. 대행 스님은 "일체는 지금 이 순간의 한 생각에 달려 있다. 자기 마음이 자기를 구덩이에 넣을 수도 있고 나오게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새해에는 보살로 살 것인가, 중생으로 살 것인가. 전 국민이 마음의 주인이 되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인공이 되어 대승보살의 지혜와 자비를 펼쳐나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社 說

조계종 화합의 첫 걸음 기대

조계종 제36대 집행부가 출범 이후 첫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기해년 한 해의 종무계획을 발표했다. 36대 집행부는 지난 몇 년간 이어진 종단안팎의 갈등이 수습되는 현재 시점에서 내부적으로 혁신동력의 기틀 마련을, 대외적으로 사회평화 정착 기여를 주요 기조로 삼았다. 구체적인 실천과제도 7대 종책을 세워 순차적인 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종책보다 눈길을 끈 것으로는 기자회견 시간을 꼽을 수 있다. 제36대 집행부의 기자회견은 과거 어느 집행부보다도 짧은 시간에 끝났다. 기자들의 질문이 많지 않았던 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 이유는 현재 조계종단 안팎의 분위기가 갈등에서 화합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몇 년간 조계종의 신년기자회견을 돌아보면, 항상 갈등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끊임없이 쏟아졌다. 항상 질문은 꼬리의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이로 인해 종단의 종책보다 질의응답이 더 큰 화제로 조명되곤 했다. 이제야 종책이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이다.

조계종은 갈등 봉합의 분위기에 맞춰 올해 '화합과 혁신위원회' 를 통한 종도 목소리 청취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듯이 중앙종무기관이 파악하기 힘든 풀뿌리 불교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수년간 갈등과 반목, 의혹과 논란으로 떨어진 장자종단의 위상이 기해년 황금돼지해를 맞아 화합의 첫 걸음으로 다시금 올라가길 기대한다.

공정한 동국대 총장 선거 바란다

동국대 제19대 총장 후보로 11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총장 후보에 11명이 등록한 것은 역대 최다로 알려졌다.

동국대 제19대 총장 후보 접수가 마무리됨에 따라 총장 선출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동국대 총장추천위원회는 1월 18일 지원자 자격심사 · 최종 후보자 수를 의결한다. 1월 22일에는 로터스 홀에서 후보 대상자 소견 발표가 있으며, 1월 28일에는 공개토론회가 동국대 총장 선거 사상 처음으로 열린다. 이들 소견 발표와 공개토론회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1월 30일 열리는 총추위 전체회의서는 최종 후보자 3~5인을 선정해 이사회에 추천한다. 동국대 이사회는 2월 7, 8일 경 열리는 회의에서 총추위가 추천한 후보 중 제19대 총장을 선출하게 된다.

동국대는 지난 4년동안 갈등과 분열로 점철된 시간을 보냈다. 새로운 총장을 선출함에 법인 · 교수 · 직원 · 학생들이 머리 맞대고 선출 시기 · 방법을 논의했던 것도 학교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 이 시도는 불발로 끝났지만, 당시 논의돼 공감대를 형성했던 공개토론회의 첫 개최는 분명 진일보한 결과다.

접수된 인사를 살펴보면 내부 인사 9명, 외부 인사 2명으로 대부분 자신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인사들이다. 이제 후보 대상자들은 평소 자신이 생각했던 학교 발전 구상을 공약으로 만들어 효과적으로 어필해야 한다. 그리고 총추위원들은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총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인신공격과 음해는 동국대 발전을 저해하는 것들이다.

이번 동국대 제19대 총장 선거가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치러져 학교 발전의 기틀이 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승가전통 건강비법
마 가 목(원탕)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 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7시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4년 10월 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 5시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탕)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상담문의 011-9049-2848 (공휴일 및 야간전화 사절)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안심사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미양로 866길 (도기동167)
• 주 지 : 자봉 (속명 : 최해룡)
• 승 번 : 01-123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사)대한불교법상종 총무원장 법하

2019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11기 수강생 모집

그동안 제1기에서 제10기까지 전국에서
1,00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19년에도 스님과
불심 깊은 불자들에게 무료로
명리학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대 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2) 불심 깊은 불자님들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① 교육기간 : 2019년 3월 12일 ~ 9월 3일까지
② 수 강 료 : 약 6개월 교육 전기간 강의료 무료
③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 (3시간)
④ 개강일자 : 2019년 3월 12일 (화요일) 오후 1시
⑤ 책 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대금 : 20만원 준비)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 지 관 음 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